

02 \_ '논문 조작사건' 이 시사하는 문제점

# 연구자의 윤리의식 결여가 가장 큰 문제

글 | 박상철 \_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한국분자·세포생물학회장 scpark@snu.ac.kr

지난 연말 허리케인보다 강한 폭풍이 불어 닥쳤다. 일반인들에게도 엄청난 폭풍이었지만 사실 과학계가 느끼는 충격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다. 특히 생명과학에 종사하는 학자들에게는 청천벽력이었다. 그렇지 않아도 생명과학 분야에서는 최근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생명체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거의 무소불위의 기량을 발휘해 생명경외 인권존중의 정신이 훼손되거나 않을까 우려됐었다. 그래서 학계에서는 이미 한국분자세포생물학회를 중심으로 생명과학 연구자 윤리현장을 제정해 선포하고 전체 회원들에게 수차례 회람해 이러한 사건의 발생을 방지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을 방지하기에는 너무도 역부족이었다.

### '생명경외' 망각 등 기본 덕목마저 심각하게 위반

이번 사건의 핵심은 본질적으로 연구자 자신의 윤리적인 문제다. 연구자의 실험에 임하는 태도의 윤리, 연구 추진과정에서의 실천적 윤리, 그리고 연구 종결 후의 결과에 대한 배분의 윤리가 모두 문제가 됐다.

생명과학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윤리적 충분조건은 연구대상이 생명체이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하에서도 생명경외심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는 상상을 불허할 만큼 많은 난자를 활용하였다. 더욱이 그러한 난자를 확보하기 위해 심지어 해당 연구원들에게까지 요구하였다는 점은 그저 놀라울 따름이다. 뿐만 아니라 아직 성공하지도 못한 연구 성과를 가지고 질 환 장애인에게 엉뚱한 희망을 불어 넣어주었다. 이러한 정황으로

볼 때 연구자들이 생명경외, 특히 인간에 대한 존중의 정신을 망각하였거나 무시하였을 개연성이 높다.

생명과학 연구자가 지켜야 할 또 다른 중요한 규범으로는 자신이 연구한 결과가 사회적으로 생태적으로 인간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반드시 인식하고 그에 대한 대비를 하면서 연구에 임해야한다는 점이다. 이번 사건에서는 이러한 점에서도 크게 벗어나 있다. 특히 인간의 체세포복제와 배아줄기세포가 초래하는 많은 윤리적 사회적 문제에 대한 논의가 충분하지도 못한 상황에서 이러한 시도를 강행하였다는 점은 매우 가슴 아픈 일이었다. 더욱이 아직 실용화할 수 없을 정도로 의학적 문제마저 심각한 상황하에서의 연구 추진 시도는 무모하기 짝이 없었다. 연구자들은 언제나 자신이 무엇 때문에 연구하는지 반드시 자문하면서 올바른 길로 가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책임이 있다. 아무리 엄청난 연구 결과일지라도 사회에 해악이 되는 연구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나 연구자로서 갖추어야 할 윤리적 책임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필요조건은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고, 연구결과에 대해서 공정하게 배분해야 하며, 다른 사람의 연구 성과를 존중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사안은 생명과학자이기에 앞서 모든 일반과학자가 갖추어야 할 기본 덕목이다. 그런데 이번 사건에서는 바로 이러한 기본 덕목마저 심각하게 위반하였다. 세계적으로 알려진 논문이 날조되었다는 사실, 논문의 공저자가 실제로 연구에 참여하지도 않았거나, 또는 논문과는 직접 상관없이 엉뚱한 목적으로 공저자

에 등재되었다는 사실 등은 너무도 어이가 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가장 정직해야 하고 명확해야 할 과학계의 명예를 훼손하고 연구자들의 피와 땀을 무의미하게 해버리는 참담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연구자의 기본 윤리적 사항도 지키지 못한다면 과학계에 몸담고 있어야 할 명분을 어디서 찾을 수 있겠는가.

### ‘학문’은 ‘여론’이 아니며 ‘진리’는 ‘정직함’에서 비롯

아울러 이번 사건은 연구자의 윤리적 측면 이외에도 많은 사회적 문제점들을 노출했다. 무엇보다 이번 사건은 논쟁이 학문의 세계에서 과학적 논증을 통한 토론의 영역을 벗어나 정치적 사회적 문제로 변질되어 버렸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먼저, 특정인의 연구 결과에 대해 국내외 학계에서 본질적인 학술 논쟁과 검증은 하지 않고, 개연성에 근거한 모호한 가능성에 심취해 아무도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언론과 정치계의 일방적이고 주도적인 선동에 학계가 논증과 비판의 본연의 자세를 잃고 휩쓸려간 점에 대해 우선 크게 반성해야 한다. 그리고 사건의 측근에 있는 연구자들은 적어도 이러한 날조된 사건을 미리 알았다면 당당하게 반론하고 잘못된 길을 고치도록 노력했어야 했다. 우리 나라 학계의 윤리적 소명의식의 결여를 크게 반성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대규모 주제의 국가적 연구 사업을 특정인에게 주도적으로 맡겨 추진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비판의 기회를 제한해 버린 과학지원 당국의 일방적이고 의도적인 시스템에도 큰 과오가 있다. 국가 신동력 사업이라는 명제 아래 오로지 일부 연구자만 부각시키면서 이에 편승하지 못하면 마치 패배자가 된 듯한 느낌을 가지게 할 정도로 유도한 결과 이와 같은 참담한 일이 벌어진 것이다.

또한 이번 연구 주제가 워낙 선정적이다 보니 언론들이 경쟁적으로 보도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혼선이 빚어지도록 유도한 사실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연구 성과를 이미 기정사실화해 버린 언론의 태도에 대해 비판과 항의를 하지 못한 것도 문제지만 학문외적 요인의 막강한 영향력을 실감케 하였다. 학술적 문제를 학계에서 냉철하게 논의하기보다 일방적 보도를 통한 여론 조작을 유도하였다는 사실은 앞으로도 명심해야 할 금기사항이다. 학문은 여론이 아니며 진리는 정직함에서 비롯된다는 너무도 간단한 사실을 망각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들을 통해 우리가 반성하고 배워야 할 점은 무엇인가 생각해 본다.

첫째, 과학은 객관성이 생명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학문적 논쟁이 학계에서 진지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사회적으로나 행정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연구의 기획, 과정, 결과에 대한 객관적 검증을 통한 성실한 과학자의 태도가 보장될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 이익집단이나 특정한 의도를 가진 집단이 주도하게 되면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둘째, 과학계의 논쟁에 대해 감성적 대응은 금물이다. 이번 사건에서도 초기에 불거진 국익논쟁의 무의미함을 이제는 모두 느꼈을 것이다. 과학자에게는 국경이 있다지만 과학에는 국경이 없고 오직 진리가 있을 뿐이다. 진리가 아닌 사실을 날조하였을 때, 학계에서는 더 이상 설 땅이 없고, 축출될 뿐이다. 더욱 현재와 같은 글로벌 시대에는 과학계의 정보는 실시간각 노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숨긴다고 될 일이 아니다. 국제적 표준에 의한 학문적 행위만이 인정될 수 있다. 뜻하지 않은 잘못된 결과에 따른 잘못된 판단은 있을 수 있으나, 의도적 행위에 의한 날조는 원천적으로 배제되어야 하며, 그 과정에서 이를 묵인한 집단에 대한 징계 또한 피할 수가 없는 것이다. 본질을 회피하고 사건을 무마하려는 시도의 무모함을 반드시 되새겨야 한다.

셋째, 학문의 논쟁에 있어서는 개방적 시스템이 중요하다. 젊은 학자들이 학문적 열망에서 제기한 이번 사건은 폐쇄된 학계의 위협성에 대해 경종을 울려주고 있다. 최근에 제기되고 있는 학계의 이상한 흐름은 나쁜 영향을 가중시키고 있다. 국가적 경제 위기 상황을 겪으면서 비롯된 연구 성과의 성급한 산업화 촉구 정책은 실험 벤처를 장려했고, 그 결과 연구 성과를 지적재산화해야 한다는 경제제일주의적 사고는 학문적 논쟁의 개방성을 위태롭게 하고, 학계간 협력 연구를 제한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학문하는 연구자들에게 겸손하고 진솔해야 하는 덕목도 크게 손상되었다. 만일 이번의 경우도 보다 일찍 연구결과를 공개적으로 토론할 수 있었더라면 사태가 이 만큼 확대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 ‘세계 최고’만 바라는 ‘가치인플레현상’도 한몫

넷째, 연구자는 자신의 연구 결과에 대해 명확하게 책임져야 한다. 이번 사건을 보면 책임자는 물론 연구진들의 행동은 비겁하기만 하였다. 그리고 그들이 서로 책임을 전가시키려는 태도는 과학자들을 모두 부끄럽게 할 뿐이었다. 더욱 해당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던 당국은 물론 각종 단체들에서는 그저 덮어두기만 하는데 급급하였을 뿐 이에 대한 책임 있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 당사자나 책임자들이 보다 일찍 양심선언을 했더라면 이러한 소모

# 배아 줄기세포 연구 논란의 올바른

2005. 12. 14(수) 오전 11시, 프레스센터



배아줄기세포 연구논란의 올바른 언론 보도 촉구 기자회견 :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배아줄기세포 연구논란의 올바른 언론 보도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전국언론노동조합 신학림 위원장이 MBC PD수첩의 조속한 재개를 촉구하고 있다.

적 사건으로 비화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다섯째, 과학의 발전에 절대 비약은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 나라의 급속한 경제성장과 과학기술 발전은 국민들의 기대치를 너무 높였고, 그 결과 세계 최고, 세계 최초가 아니면 학문적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가치 인플레이션상이 벌어진 까닭에 이러한 사건이 일어났던 것이다. 우리 현실에서 과학적 기초를 보다 단단하게 다져서 원대하며 분명한 기획을 세워 나가야 한다.

마지막으로 과학은 사람이 하는 것이다. 바로 연구자가 지켜야 할 기본 덕목을 갖추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크게 부각되었다. 연구자로서의 윤리에는 연구 대상에 대한 존중, 연구 결과에 대한 책임, 연구 성과에 대한 공정한 배분 등의 기초적 윤리부터 확실하게 갖추어야 할 것이다.

이번 사건을 겪으면서 학계는 물론 학계를 감싸고 있는 세상이

학문적 성과에 대해 보다 차분해지고 냉철해야 한다는 명제를 얻었다. 그리고 과학이 학계를 떠나 정치계와 사회언론계를 방황하고 다닐 때 얼마나 처참해질 수 있는가를 뺏속 깊이 체험했다. 그 내야 할 수밖에 없는 하나의 성장통으로 생각하고 이를 하루 속히 극복해 나가야 할 것이다. 과학을 하는, 특히 생명과학을 하는 연구자들은 다시 한 번 자신의 연구결과가 초래할 수 있는 문제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생명경외의 정신을 잊어선 안 되며, 무엇보다도 학자로서의 양심에 어긋나는 행동은 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한국분자세포생물학회가 주관해 선포한 생명과학연구자 윤리 헌장은 생명과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에게 스스로 연구에 임하는 태도를 엄숙하고 진지하게 임하도록 유도해 이번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국내외 학계에 그나마 위상을 세울 수 있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대중매체들이 이를 비중 있게 받아들이고, 우리

# 언론보도를

## 19층 기자회견장



학계의 자정능력을 재평가해주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이제 우리의 과학은 새롭고 건강하게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모든 행정지원 당국과 단체에서는 과학이 학문의 세계에서 진지하게 검증되고 비판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과학의 발전에는 허황한 미사여구나 꿈같은 희망적 요구보다 기초부터 확실하게 다져가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보다 확실한 우리의 미래를 위해 진정으로 기초과학을 확실하게 다져야 할 것이다.

더 이상 사상누각의 잘못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 그리고 과학을 바라보는 국민들은 보다 차분하게, 그리고 단계적으로 과학이 발

## 생명과학 연구자 윤리헌장

생명과학은 인간의 삶의 질과 인류복지 향상에 기여한 바가 크다. 그러나 최근 생명과학의 급속한 발전에 수반되는 부작용과 위험에 대해 생명윤리 및 안전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증가하고 있어 사회적 책임의식과 윤리적 기준을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우리 학회는 '생명과학 연구자 윤리헌장'을 제정해 국제적 지침과 관련 법률을 준수함과 아울러 보편적 윤리원칙에 준하는 생명과학의 발전을 추구하고자 한다.

1. 우리는 생명의 존엄성을 깊이 인식하고, 우리의 연구 활동이 생명의 존엄성을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2. 우리는 생명윤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우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연구를 수행한다.
3. 우리는 개인과 집단, 조직과 사회, 국가와 민족, 그리고 인류의 복지향상을 위해 과학기술 연구에 정진한다.
4. 우리는 정확한 과학정보를 공개하고 일반 대중과의 의사소통을 통해 이를 널리 알리기 위해 적극 노력한다.
5. 우리는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 피험자의 인권과 존엄성 및 복지를 침해하지 않으며 반드시 피험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동의를 얻는다.
6. 우리는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 실험동물에 대해 적절한 존중과 주의를 기울이고 적합한 규정을 준수한다.
7. 우리는 연구과정에서 생태계를 위협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을 경주한다.
8. 우리는 건전한 과학발전을 위해 연구자간의 신뢰와 존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연구결과물의 객관적 평가를 위해 노력한다.
9. 우리는 생명과학자 공동체 안에서 민주적인 절차에 의한 의사결정과 과학기술 연구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노력한다.
10. 우리는 연구자간에 연구 성과를 공정하게 배분하고 동료 연구자의 저작권 및 사용권 등의 권리를 존중한다.

2005년 10월

한국분자·세포생물학회

전하는 모습을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 이제는 학문의 진지한 모습과 피땀 흘려 노력하는 연구자들의 모습에서 삶의 의미와 가치를 느낄 수 있도록 믿고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㉓



글쓴이는 서울대학교 의대 졸업 후 동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서울대학교 연구처장, 한국노화학회 회장, 국제노화학회 회장 등을 지냈다.